꼭 되어야할 좀 색다른 죄인

(막2:13-17)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꼭 되어야할 좀 색다른 죄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됨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된 신분을 죄인 된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선포하신 그 천국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일상화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죄인 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내용의 죄인이 있습니다.
좀 색다른 죄인이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죄인 됨의 내용과는 아주 좀 다른 그런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은 우리가 힘써서 되어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진짜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 자신도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10,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자기들이 의인인줄 알고 있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그러하니 자기들이 죄인인줄을 알고 있다.
아니면, 세리와 창기가 아니더라도 본문의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은 자기의식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때에도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씨멀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simul justus et peccator)’, ‘simul’이 뭐냐 하면 ‘동시에’ ‘justus’ ‘의인이요’, 'et' 그리고 'peccator' 죄인이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동시에 내 존재는 죄인이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에 담으신 ‘죄인과 의인’,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안에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건 맞았건 그건 둘째 문제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 의인이라는 개념, 바리새인들이 생각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나는 왔다’ 이 뜻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인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죄인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의인은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인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죄인이 있다, 자기 죄를 아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죄의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말할 때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사회적 측면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기록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입니다,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 세리인 마태의 친구뿐 아니라 죄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 말이 포인트라 이겁니다, 마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예수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름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리가 누구고 죄인이 누구입니까?

세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로마정부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정부가 어떤 권리를 위임하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면서, 만일에 한 사람당 10원을 거둬서 로마정부에 바쳐야 된다고 하면, 15원을 징수하든 20원을 징수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정부는 그 세리가 되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불한 비용 때문에 세리들은 그 비용을 뽑기 위해서라도 동족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로마정부에 납입할 것은 납입한 후에 남는 것을 자기가 착복했던 것이에요.
로마의 시인 아래 정당하게 착복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600가지가 넘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600가지가 넘는 자기들이 해석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속에서는 그 사회 내에서의 창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점이 이상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전파한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서 죄인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해 유대사회에 소속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리나 죄인과 창녀들은 유대사회의 자치조직, 그러니까 로마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유대나라 안에 있는 풍습과 법도를 따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 자치권 안에 절기에 따른 예배라든지 회당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든 모임에 이들은 참여를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도 없는 겁니다.
유대사회 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이들은 다른 이방사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그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방나라들은 다 멸망할 사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민으로써 해야 되는 그 집회와 행사와

모든 조직에 소속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사회에서의 왕따들이 있었는데, 이 왕따들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자들, 정통유대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자들, 정통유대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얘깁니다.
정당한 이유로 그랬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편견에 의해 그랬든 하여간 정통유대사회로부터 벗어난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인정하듯이 유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라이벌의 위치에 서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소속감이 인정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왕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다, 죄인 됨의 특징은 정통유대사회에 소속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너희가 생각한다, 그런데 아느냐? 너희는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지? 그런데 너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져온 천국을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유대사회 속에 있느냐? 그리고 유대사회에 소속된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 정당하게 소속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고, 소속감을 갖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느냐? 너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네가 생각하는 죄인들, 그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유대사회의 왕따들,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들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죄인이 너도 되어라, 너도 그 유대사회의 소속감을 버려라' 하는 얘깁니다.
절대로 이 땅 위에 그 어떠한 소속감을 갖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따 당한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그토록 저주하고 멀리하기를 원하는 그 왕따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힘써 죄인이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속감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빠져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을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소속감? 안돼요.
내가 어느 가정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은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 안돼요.
동호회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소속감 때문이라면 안돼요.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소속감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미국시민이라서 미국에 속했다는 소속감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복음과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는 가정에서 살면서 가정에 소속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는 파견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소속감이 완전히 깡그리 머리털 끝만큼도 없이 제거된 후에라야 천국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어야만 천국에 소속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자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으로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소속된 자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로서 대한민국에 파견 나와 사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속감이 제로 되지 않고는,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소속감조차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는 안돼요, 동호회에도 내가 천국 소속으로서 파견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의 죄인, 왕따예요.
유대사회의 왕따, 이 땅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팽 당한 자들이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입

니다.
이 죄인은 우리가 힘써 되어야 할 죄인이고, 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소속감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속감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속감을 어떻게 끊어냅니까?
소속감의 가장 우선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동일시예요, 동일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일본에게 졌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질이 납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한국 국기를 달고 축구를 하는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속감입니다.
이기면 기뻐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 내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5세나 된 다 큰 자식놈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가 내 아들 맞아? 이 집안사람 맞아?' 왜 그래요?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일이 터지면 안타깝지만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난 미국 소속이 아니니까.
이 동일시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 빨려 들어갑니다,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가 상승합니다, 확 빨려 들어갑니다,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된 것,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단체나 조직도, 나라고 민족이고 가족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동일시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소속감을 다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속감을 다 끊어낼 각오가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태도 1단계, 동일시 소속감을 끊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은 자인데…' 그래서 내 소속을 확인합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소속을 확인합니다, 천국으로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갑니다.
천국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내 가정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내 마음은 지금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의 노래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육체의 다윗, 자기 몸에 대해서도 동일시를 끊어내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마음이 동일시를 느끼면서 몸이 속한 단체에 동일시를 느끼고, 몸이 속한 관계하는 사람에게 동일시를 느끼니까, 몸에 대해서 동일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도 남의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남의 일 남의 나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내 몸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이 잠수하듯이 파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머릿속에 있는 의인의 개념 죄인의 개념, 유대사회에 소속될 수 없는 왕따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의인, 어느 소속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어느 회사가 나를 회사 직원으로 받아들였다, '너는 우리 회사에 쓸 만해, 회사가 갖고 있는 강령과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었어',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입니

다, 바리새인이 보는 의인.
이 의인은 죽어도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연대감이나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끊어져나가 완전히 세상에서는 외톨이가 되어야 완전한 죄인,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회도 세상에서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어야 천국에 소속될 수 있고, 이 사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좀 색다른 죄인이지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왕따로서의 죄인, 힘써 십자가를 붙잡고 되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좀 색다릅니다.
그러나 그 죄인,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죄인,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주어져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동일시됨을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끊어내고 주님과 연합해서 천국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오직 파견된 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